

기아, 임협 가결에도 단협 부결 '찬물'... 추석 전 마무리 무산

국내 완성차 업계 임단협

현대차, 7월 임단협... 업계 주도 한국지엠·르노코리아 협상 마무리 기아 노조, 구매할인 등 복지 불만

국내 완성차 업계가 추석 전 임금 및 단체협상을 타결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기아 노사가 협상 막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원점으로 돌아갔다.

현대자동차와 르노코리아자동차 무분규로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한 가운데 마지막까지 노사간 갈등을 빚었던 한국지엠이 임단협 잠정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기아 노조가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 가결되면서 완성차 업계 임단협 해빙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모양새가 됐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등 외부 악재에 따른 산업계에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노사가 협력을 통한 돌파구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2일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한국지엠 노사의 잠정합의안은 ▲ 기본급 인상 5만5000원(호봉승급분 포함) ▲ 타결 일시금 500만원 ▲ 위기 극복을 위한 격려금 100만원 ▲ 신규 차량의 성공적 출시를 위한 일시 격려금 100만원 ▲ 재래시장 상품권 30만원 등을 포함하는 총 730만원 상당의 임금 및 일시금, 격려금 관련 사항과 웨브레 브랜드 수입 차량에 대한 임직원 10% 할

인 등을 포함하는 단체교섭 별도 요구안 관련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국지엠 노조는 오는 6, 7일 양일간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지엠은 이번 잠정합의안 도출에 대해 "신속한 타결을 위해 회사가 낸 최선의 최종안에 대해 노동조합이 결단해 노사 간 잠정합의를 이룬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며 "내년 차세대 글로벌 신차 출시 준비 등 매우 중요한 시기에 노사가 함께 도출해낸 잠정합의를 바탕으로

올해 교섭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6월 23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9월 2일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18차례의 교섭을 가졌다.

반면 기아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전국 사업장에서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 참여한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소하지회·광주지회의 임협 찬성률은 모두 50%를 넘었지만 단협 찬성률은 30~40%대에 그쳤다. 가결 조건은 투표인원 대비 50%다.

단체협약은 경조휴가 일수 조정 및 경조급 인상, 건강 진단 범위 및 검사 종류 확대, 유아교육비 상향 등을 담고 있다. 이중 신차 구입 할인율을 놓고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신차 구입 시 할인율을 기존 30%에서 25%로 축소하고 해당 연령도 75세까지로 제한을 둔 것에 대해 내부 불만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기아 노조는 임협과 단협 잠정합의안에 대

한 조합원들의 정확한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찬반투표를 분리해 진행해 왔다.

단협 부결로 노조 집행부는 추후 쟁대위를 열고 사측과의 재교섭, 협상 일정 등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7월 업계에서 가장 빨리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기본급 9만8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경영성과급 200%·400만원·주식 20주 지급, 국내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 등 '국내 공장 미래 투자 관련 특별 합의서' 등이 골자다.

이어 르노코리아도 지난달 31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기본급 6만원 인상, 격려금 300만원과 비즈 포인트 20만원 지급, 휴가비 인상 등이 포함됐다. 올해 임단협의 화두였던 3년간의 다년합의는 사측이 제안을 철회하면서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쌍용차 노사는 지난해 자구안에서 임단협 주기를 3년으로 연장해 올해는 교섭을 건너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끝 안 보이는 경기침체... 메모리 반도체 가격 '뚝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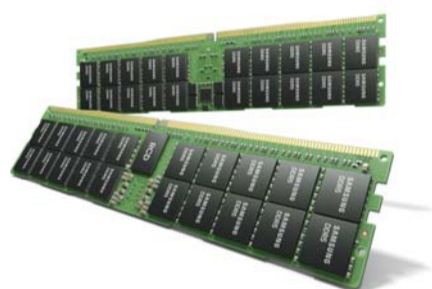
DDR5 등 전반적으로 가격 하락세 일각선 새로운 생태계 확보 기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세를 본격화했다. 시장 반전을 기대케 했던 DDR5 D램도 예외가 아니다.

4일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DDR4 1Gb*8 고정 거래 가격은 2.85달러로 2020년 12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전달보다도 1.04% 떨어졌다. 하락폭은 14.03%에서 크게 완화되긴 했지만, 트렌드포스 등 업계에서는 앞으로도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낸드플래시도 마찬가지다. 128Gb 16G*8 MLC 고정거래가는 평균 4.42달러로 전달보다 1.67% 낮았다. 마찬가지로 전달(3.75%)보다는 낙폭이 줄었



HKMG 공정을 적용한 삼성전자 512GB DDR5 모듈. /삼성전자

지만, 그나마 회복했던 가격이 하반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메모리를 주력으로 하는 국내 반도체 업계 피해도 가시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반도체 수출액은 26개월만에 역성장했다. 재고도 전달보다 12.3%나 늘어나며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3분기 실적

전망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는 상황, 국내 반도체 업계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가격 방어 요인으로 기대를 모았던 DDR5 D램도 가격 하락 영향을 피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외신 등에 따르면 DDR5 D램 가격도 큰폭으로 떨어지며 DDR4와 가격차이가 3배에서 2배 수준으로 좁혀졌다.

메모리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은 경기 침체다. 중국 봉쇄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데다 PC와 모바일, 서버 등 주요 시장 수요가 크게 위축되면서 판매량뿐 아니라 가격 하락까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전세계에서 비트코인 채굴 사업도 잇따라 폐업하면서 그래픽카드 재고까지 '처치곤란'인 상황이다.

다만 아직 긍정적인 기대도 남아있

다. 삼성전자 갤럭시 신형 폴더블폰이 인기를 거둬주는 가운데, 애플도 신형 아이폰 생산량을 지키기로 했다. 차세대 그래픽 카드도 계획대로 올해 중으로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AMD가 DDR5를 지원하는 라이젠 7000시리즈를 공개한데 이어 인텔도 처음으로 DDR5 D램을 지원하는 서버용 CPU를 곧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DDR5 D램 가격 인하가 메모리 시장에 긍정적일 가능성도 있다. 비싼 DDR5 D램 가격이 시장 성장을 제한해왔던 만큼, 새로운 CPU 출시와 함께 수요도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실제로 AMD는 최근 라이젠 7000시리즈를 공개하면서 DDR5 가격이 떨어지면 새로운 생태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용 기자 juk@

르노코리아자동차 추석맞이 정비할인 프로모션

르노코리아자동차가 추석을 맞이해 엔진 및 미션 관리 아이템에 대한 특별 정비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4일 르노코리아에 따르면 10월 15일까지 진행되는 특별 프로모션은 장거리 운행이 많아지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고객의 안전 운행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기간 중 르노코리아 직영 및 협력 AS 서비스센터에 방문한 고객은 캐스트롤 100% 합성엔진오일, 프리미엄 에어컨 필터, 엔진 보호제, 엔진 세척제, 미션 오일을 15% 할인된 가격에 교체 받을 수 있다. 공식 멤버십 애플리케이션 MY 르노코리아 앱 가입 고객은 이들 제품에 대한 할인 폭이 20%로 확대된다.

/양성운 기자

KT 'AI 통화비서 Lite' 출시

KT가 AI(인공지능) 통화비서의 핵심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가격은 대폭 낮춘 'AI 통화비서 Lite' 상품을 새로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AI 통화비서를 출시한지 11개월만에 고객의 경험을 반영한 실속형 요금제가 나온 것이다.

KT AI 통화비서 스탠다드 버전은 월 2만원(VAT 별도)에 ▲AI 인사말 ▲AI 메모 ▲주차 안내 ▲예약 및 주문 접수 등 매장으로 들어오는 복잡한 전화 문의들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이번에 출시한 KT 'AI 통화비서 Lite'는 보다 많은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월 5000원(VAT 별도)으로 가격을 대폭 낮추면서도, 기존 스탠다드 버전에서 고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던 'AI 인사말'과 'AI 메모' 기능을 그대로 살렸다.

/양성운 기자

/채윤정 기자 echo@

"벤츠·토요타 이상"... 美·유럽서 현대차그룹 친환경기술 찬사

아우토 빌트 "스포티지, RAV4 앞서" 카엔드라이버 "올해의 전기차 아이오닉5"

현대자동차그룹의 친환경차 모델들이 자동차의 본고장 유럽은 물론 미국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달라진 위상을 확인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아우디 등 브랜드는 물론 글로벌 자동차 판매 점유율 1위인 토요타의 친환경차와 비교평가에서도 우위를 점하며 주목받고 있다.

4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독일의 자동차 전문매체 '아우토 빌트'(Auto Bild)는 최근 실시한 하이브리드 SUV 비교 평가에서 "기아 스포티지가 토요타 RAV4보다 한 세대 앞선 차"라고 평가했다.

이번 비교평가는 친환경 SUV인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와 RAV4 하이브리드 2개 모델을 대상으로 ▲바디 ▲편의성 ▲파워트레인 ▲주행성능 ▲커넥티비티 ▲친환경성 ▲경제성 등 7가지 항목에 걸쳐 진행됐다. 스포티지는 바디, 편의성, 주행성능, 커넥티비티 등 4개 항목에서 앞서고 친환경성에서는 동점을 획득해 종합점수 563점으로 RAV4(540점)를 제쳤다.

특히 스포티지는 편의성과 주행성능 항목에서 RAV4보다 각각 13점, 11점이나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대차의 아이오닉 5는 지난달 아우디 e-트론, BMW iX, 메르세데스-벤츠 EQS 등과 경쟁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현대차 아이오닉 5는 최근 미국 자

동차 전문지 카엔드라이버가 발표한 '2022 올해의 전기차'에 선정됐다.

카엔드라이버는 아이오닉 5를 포함해 아우디 e-트론 GT, BMW i4 및 iX, 웨브레 볼트 EV, 포드 머스탱 마하-E GT, 메르세데스-벤츠 EQS 등 20개 전기차 모델을 대상으로 3주간의 평가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오닉 5는 19개 경쟁 차량을 제치고 최고의 전기차로 선정됐다. 평가는 카엔드라이버 에디터들을 통해 ▲차량 가치 ▲주행 테스트 ▲차량에 적용된 신기술 ▲주행의 즐거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토니 퀴로가(Tony Quiroga) 카엔드라이버 편집장은 "아이오닉 5는 주행성능, 항속거리, 충전속도 등 차량 전반적



기아 스포티지 HEV

인 부분에서 우수한 상품성을 보여줬다"며 "전기차 구매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매력적인 제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이 내놓은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하이브리드카,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들은 상품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주요 수상 리스트에 꾸준히 전세계 미디어의 비교 평가에서도 지속 호평 받는 등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